

내가 아는 차인석 선생

한 전 속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1

차인석 선생 하면 우선 나는 서글서글한 영국형 귀공자를 연상한다. 그는 언제나 평화로운 분위기로 상대방을 감싸준다. 그래서 마주하는 사람에게 결코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 갈등, 다툼 같은 것은 그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베풀기를 좋아하여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나는 한때 그를 '낭만' (광고 근처 맥주집)의 기둥서방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니나노 술집을 누비고 다닐 때 어쩌다가 '낭만'에 들리면 여러 교수들 틈에 어김없이 차 선생이 보였고 또 바로 그 차 선생이 늘 물주었으니깐. 외국엘 가면 나는 여기저기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누를 끼치게 마련인데 차 선생은 오히려 그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그의 외국인 스승이나 동료 교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너그러운 성품은 그의 학문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

우리의 관심사인 차 선생의 학문적 활동에서 나는 제일 먼저 한국의 현상학계에 대한 그의 공헌을 들리고 싶다. 그는 원래 후설을 연구한 정통 현상학자이다. 이것은 차 선생이 1968년 서독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얻을 때의 논문이 「후설 현상학에 있어서의 대상개념의 연구」임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현

상학회는 1976년 12월에 한국철학회 산하에 '현상학 분과연구회'로 등록하면서 그 공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차인석 선생은 1977년 3월에 한양대학교로부터 서울대학교로 옮겨오면서 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분과연구회가 1978년 2월 17일 한국현상학회로 개편하는 창립총회에서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보다 앞서 차 선생은 1973년 3월부터 여의도 복음교회 안에 한국사회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현상학회는 그 창립총회를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모임을 바로 이 방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방은 정말로 아담하고 아름다웠다. 집기들도 현대적이고 새것이오 무엇보다도 너무나 깨끗하였다. 처음엔 복도 건너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있는 것도 신기하게 보였다. 요새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안방에서 복도로, 집무실에서 화장실로 등등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따위의 일은 아직 상상도 못할 그때였지만 그래도 교회 구역이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복도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들의 숫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은데도 아무런 불평도 없었다. 그래도 그때까지 일정한 자리도 없이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발표 장소를 찾아다니던 우리에게겐 새로운 보금자리와 같았다. 우리는 말하자면 떠돌이 신세를 면한 셈이고 여기는 곧 한국 현상학의 앞으로의 도약의 산실이 되었다.

차 선생은 그 후 「생활세계의 현상학」(1977), 「미국과 유럽에서의 현상학 연구 현황」(1979), 「사회과학의 방법론」(1980), 「현상학에 있어서의 지향성과 구성」(1983), 「사회인식의 선이해 구조」(1986) 등 논문을 발표하고 1980년 5월과 1982년 8월에는 일본현상학회 제2차 및 제4차 발표회(南山대학과 東北대학)에 참석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현상학 연구상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히 1985년 12월부터 1990년 1월까지의 한국현상학회의 제3대 회장으로서는 우리의 현상학계를 직접 진두지휘 하였다. 더구나 그의 본래의 관심은 슈쯔(A. Schutz) 등을 통한 사회철학이어서 우리는 그의 현상학 연구의 방향을 응용현상학으로 분류하곤 했다. 이것은 슈테크 뮐러가 『유럽현대철학사』에서 현상학 부문을 순수현상학과 응용현상학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으로 차 선생의 이런 연구경향은 우리

나라의 현상학이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법학, 음악, 건축학, 교육학 등등 여러 특수과학으로 그 연구 분야를 넓히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니 차 선생은 금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현상학회가 그 처음 10년간 기초 다지기를 할 때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 나라 현상학의 역사에서 제1세대에 속한다.

3

차인석 선생의 학문활동에서 두 번 째로 거론되어야 할 것은 그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담당한 역할이다. 차 선생이 서울대학교로 옮겨올 때가 1977년 3월이다. 그래서 그는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곧 우리 나라 철학계에서 "사회철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1980년대를 맞는다. 이때 사회철학이란 내용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좌파적 사회철학 즉 사회주의철학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대학교는 1975년 종합화 계획에 따라서 의대, 치대, 농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이 관악의 계곡 안으로 모였다. 당국에서는 관악산 캠퍼스를 아예 붉은 색 일색으로 칠해놓고 있을 당시이다. 그래서 사복 경찰이 공공연히 교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기숙사를 비롯하여 학교 전체를 접수하여 휴교령이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명현 교수를 비롯한 몇몇 교수가 정치교수라 하여 몇 년씩이나 정직처분을 받기도 한다. 강의가 진행 중인 교실 바로 밖에서 최루탄이 따발총 같이 발사되거나 데모 현장을 덮치려는 경찰과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학생들과의 필사적인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언젠가 나는 2동에서 강의하다가 돌맹이 하나가 강의실 유리를 뚫고 교탁 근처에 날아 들어온 것을 경험한 일도 있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철학과는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지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교수는 담당분야로 보아 바로 차인석 선생이었다. 이상철 선생이 있

였으나 그는 헤겔, 딜타이, 가다머를 읽는 역사철학, 해석학 전공이었다. 더구나 그는 1986년 5월에 오랜 투병 끝에 타계하고 만다. 차 선생은 벌써부터 마르크제의 『일차원적 인간』(1974), 『현대산업사회의 비판이론』(1979)을 번역하여 우리 나라 철학계에 프랑크프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소개하고 있었으며 또 한국사회과학연구소를 차려놓고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사회과학총서』 전 11권을 편집 간행하고 또 저서 『현대정치와 철학』(1978) 도 간행한 사회철학 전공의 교수이다. 학생들은 당연히 차 선생에게로 몰렸다. 그런데 차 선생의 입장은 그가 저서 『사회인식론 — 인식과 실천』(1987)이나 『사회의 철학 — 혁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1992) 등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혁신자유주의 또는 혁신적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사회주의 원리를 접목시키는” 입장이다. 기층민(基層民)을 사회의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말고 중산층과 기층민이 함께 주도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한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의 평등이 넘어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 선생은 학생들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지적 요구를 조금도 기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학부, 대학원에서 딜타이, 헤겔, 피히테 이외에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경제철학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신성가족』, 『철학의 빈곤』, 『사적 유물론』, 『유물론과 경험론비판』, 『자본론』 등 사회주의사상의 핵심 교본들을 차례차례 읽었다. 그리고 포이에르바하, 루카치, 알튀세르, 마르크제, 호르크하이머, 하버마스, 아담 샤프 등등, 또 가다머, 아펠, 듀이 등등도 읽었다. 단 차 선생은 반드시 2차 문헌 아닌 원전을 읽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차 선생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의 세미나는 언제나 학생들이 대형 강의실을 꼭 채워서 복도에까지 넘칠 때도 적지 않았다. 이리하여 차 선생은 1978년부터 98년 8월까지 석사 43명, 1989년부터 98년 8월까지 사이에 박사 13명을 지도 배출하고 있다. 이것도 한 두 분 선생에 지도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을 피하여 사전에 과에서 조절한 결과이다. 이들 중 마르크스를 주로 다룬 논문이 14편, 헤겔을 주로 다룬 논문이 13편으로 이 둘을 합한 것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4

그런데 논문지도에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학생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때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책을 읽는 기성인은 대학에서의 지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식화된 학생들은 진리에 대한 순정이 간절하면 할수록 더욱더 배타적이 되기 쉽다. 차 선생의 보다 더 어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차 선생은 최소한 의견상으로는 소리 없이 모두 이겨나갔다. 그리하여 저 많은 학위 보유자를 길러냈다. 우리 철학과가 그 살벌하고 어려운 사회철학의 시대를 학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너그러운 성품과 커다란 포용력을 가진 차 선생이(아마도) 고군분투한 덕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1989년 4월에 차 선생의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소위 한철연)를 창설했다는 소식을 뒤늦게나마 듣고 나는 적지 않게 놀랐다. 꽤 많은 했수(아마도 5, 6년도 더) 사회철학 계통 졸업생들이 한국철학회나 철학연구회의 학회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던 터였다. 저 젊은이들이 기성단체나 기성인들을 보수적이라고 경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결국 저렇게 독자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공공연히 독립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나날이 적체가 심해가는 떠돌이 박사들 —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대학에 적을 얻지 못하고 시간강사로만 전전하는 박사들 — 의 구심체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더구나 좀더 들여다 보니 그들은 창설과 더불어 각 분과 별로 계획적으로 발표회와 독서회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면서 창설 다음 해 6월부터는 년 2회 발간하는 기관지 『시대와 철학』을 발간하기 시작하고 동독에서 발간된 철학사전을 번역해 내는 등 아주 독특한 철학적 활동을 아주 정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직체에는 최소한 의견상으로는 그들을 키워낸 대학서질의 지도교수들의 참여는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한철연의 출현은 한국 철학계에 야적 단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구나 하고 나는 사실 크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속단이었다. 공산주의사회의 몰락이라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1993년 차인석 선생의 회갑을 기념하여 수년간의 준비 끝에 발간된 『사회철학 대계 1, 2, 3권』은 그들이 역시 차인석 선생의 제자들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훌륭한 증거였다. 금년 1998년 8월 차 선생이 정년퇴임 할 때는 예정대로 그 4, 5권이 속간되고 있다. 차 선생의 제자들과 또 이들의 제자들이 총망라된 대장거이다. 이것은 차 선생 같이 마음이 트이고 그릇이 큰 학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5

1980년대까지의 차인석 선생의 학문활동의 특징은 현상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의 확립에 있다. 아무리 지식사회학이나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차 선생에게서 과학(Wissenschaft)은 결코 실증주의적 방법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은 차 선생이 철학을 시작할 때 후설의 현상학으로 기초를 다진 데 연유한다. 사회과학은 모름지기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에 대한 이런 성격규정은 차 선생의 현실참여를 방해하지 않는다. 차 선생의 1990년대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실천활동의 시기이다. 그는 1991년부터 92년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과학분과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가 1993년부터 96년까지는 동 위원회의 사무총장 직을 맡고 있다. 이렇게 유네스코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도 차 선생은 대학에서의 매주 두 강좌의 수업을 내내 고집하였다. 그리고 사무총장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1996년에 대학으로 돌아와서 2년간의 교수생활을 하고나서 정년퇴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 민주주의를 위한 아태(亞太)지역 철학교육네트워크(APPEND) 위원장을 맡고 또 1997년부터는 서울대학교-유네스코 철학교수를 담당하여 작금은 호주, 필리핀, 태국, 파리 등등에서의 강연여행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차 선생의 이런 활동에서 우리는 이론과 실천의 조화로운 합주를 본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여러 모임에서 그가 발표한 논문들의 제목에 tolerance, peace 와 같은 낱말이 보이는 것은 역시 그의 성품의 나타남이라 여겨진다. 정년을 맞은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리고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여 우리 사회에 보다 더 큰 발자국을 남겨주기를 바란다. (1998. 11.)